



# 포장기계단지 구축이 꿈

전문 포장기계메이커로 발돋움



▶ 울성정공 오펜제 사장

우리나라 포장기계는 일본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으며 성장해 오면서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기계로 변화되어 왔다.

필로우 자동포장기의 경우 삼립식품을 모태로 삼양라면이 도입하면서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

70년대 중반 신아가 일본 오무리와 기술제휴로 최초 필로우포장기를 보급하면서 시작된 이 분야는 최근 활동하고 있는 업체만도 20여개에 달한다.

그 가운데 4~5개 업체가 국내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력과 기업 신임도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기술과 독심으로 필로우포장기계 업계의 선두자리를 넘보고 있는 울성정공은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기계를 제조, 내수 및 수출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필로우 포장기는 미국식 박스형, 일본식 L형, 유럽의 민자형이 있지만 울성의 포장기는 이들 제품의 장점을 택해 만든 독특한 형식의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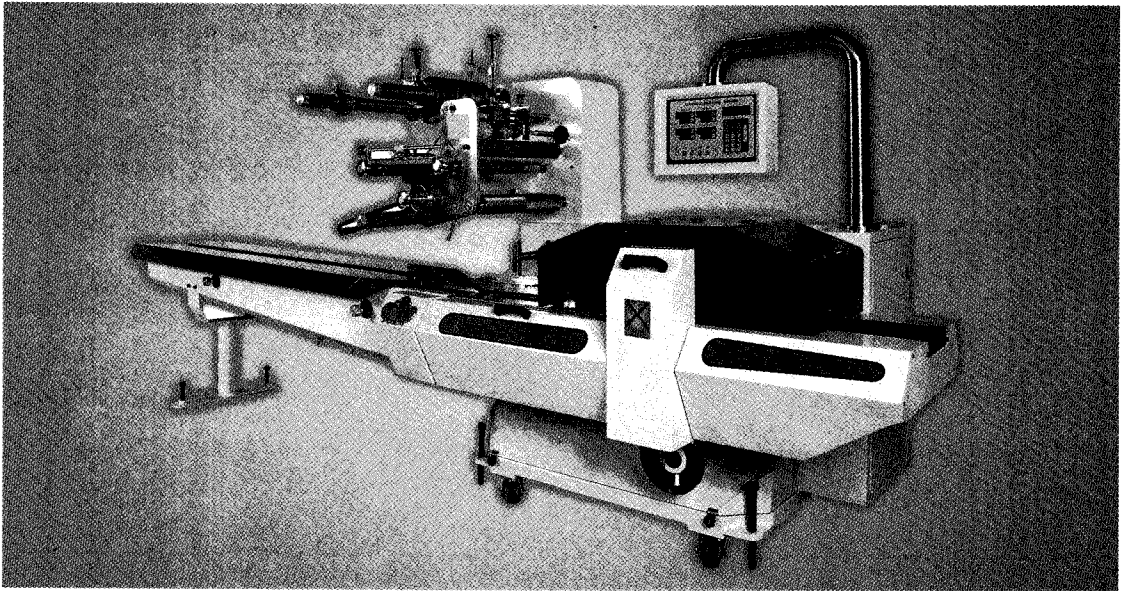
보는 사람에 따라 어느 형태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지만, 울성의 오펜제 사장은 그들만의 독특한 형태라고 자부하고 있다.

국내전시회보다는 해외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울성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있으며,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30만불을 수출했던 울성은 올해 40만불의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재상태라면 목표를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의 기계제조업체 방식의 생각으론 기업이 발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오 사장은 소비자의 편리성을 위주로 한 기계를 만들고 선택받기를 원한다.

좋은 제품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제 가격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 기계업체는 아직 가격만으로 수주전을 벌이는 행태가 만연되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 울성정공의 수평형 삼면 포장기 ES-101

오 사장은 철저한 경제원칙에 입각해 생산원가를 줄여 저가에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를 나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지적한다.

자기 개선의 노력으로 절감시킨 부분만큼을 되 돌려 주는 것임에도 노력도 하지 않은 업체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이다.

사실 울성정공도 후발업체의 가격경쟁으로 고 배를 마시기는 했어도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는 업체에게는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선의의 경쟁을 위한 자구노력을 배가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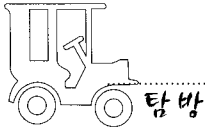
이런 결과에서인지 요즘 작업물량이 늘어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동안 지적되어온 디자인과 기초재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모든 부분을 국산화시키려 해도 기초 소재의

품질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로 유저들이 외국 부품을 지정해서 제작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산소재의 사용이 제한되고 또한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필로우 포장기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신속한 정보와 노하우를 축적해야 된다는 오 사장은 그래서인지 외국에서 열리는 유수의 포장전시회를 빠짐없이 참관하고 가능하면 참가도 한다.

현재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발전, 더 나아가 포장기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오 사장은 기존 선발업체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해야 후발업체들도 발전할 수 있는데 후발업체와 경쟁하려 드는 우리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 스스로도 이제 어엿한 자가공장을 갖추고 현실에 안주할 여건도 되었지만 부의 축적에 대한 미련은 없다고 한다. 재투자 또는 업계를 위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한다.

꼭 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마음으로 다지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포장기계와 기계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포장관련 대학을 세워 기술인력을 제대로 키우고 싶은 것도 하나의 꿈이고 실현하고 싶은 욕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포장기계 생산단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포장기계의 본산으로 만들고 저가 기계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 사장은 항상 되뇌이는 말이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심리학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나태해짐을 단속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의 효율을 위해 하루의 일과라도 계획을 짜서 움직이다 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을 실천하며 직원들에게도 강조하고 있다.

14년전 무자본으로 시작해 처음 2백만원의 거래를 시작으로 필로우포장기업체를 경영해 온 오 사장은 “내 건물을 갖고 이전 개업했을 때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외국 기업과 견주며 수출할 때 지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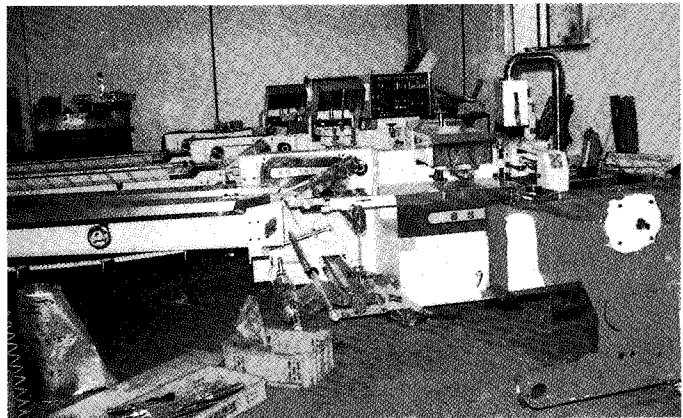
고생해온 것에 대한 보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울성정공은 수평형 삼면포장기, 자동용기 톱셀링기, 복식진공포장기를 주종으로 생산하고 있다. 수평형 삼면포장기는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제품으로 필름 파손 및 완전 소모시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해 필름손실을 최소화 하고, 아이마크 전·후 보정장치 장착으로 미려한 포장 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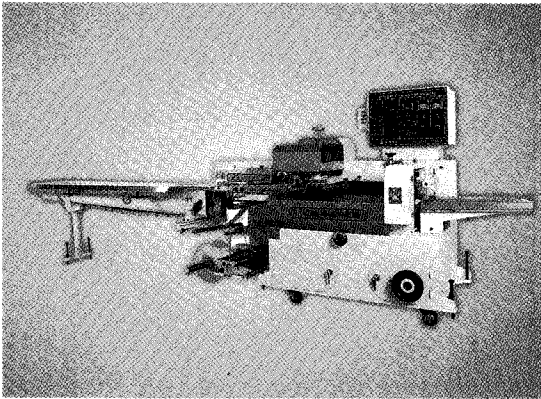
2개의 센타실러 및 2개의 커터실러에서 온도가 각기 제어되어 정확한 제품 접착 및 미려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조작 패널이 자유롭게 회전 가능하여 작업자가 손쉽게 온도, 속도, 절단길이 등을 운전중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기계 조작부 및 콘트롤 패널이 기계 전면에 있어 제품 변경시 조작이 신속 용이하고, 필름걸이는 필름 폭이 변경되어도 자동으로 센터 위치 보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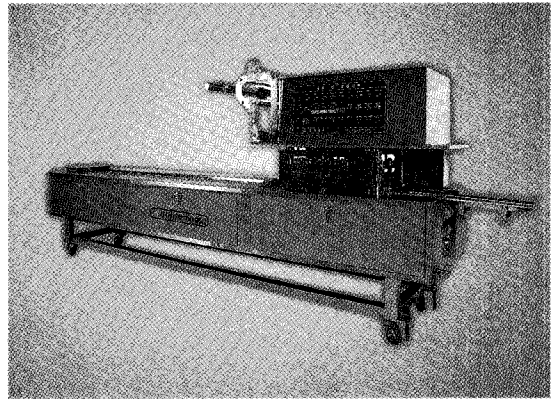
각종 제품은 크기에 따라 고정포머 및 조절포머를 쉽게 교체 가능하며 기계 멈춤시 커터실이



▲ 울성정공의 조립작업 현장



▲ 음성정공의 수평형 삼면 포장기 ES-102



▲ 음성정공의 자동 용기 톱 썰링기 ES-201

항상 벌어짐으로써 필름 및 칼날을 보호한다.  
 자동 용기 톱 썰링기는 공압식 이중 접착방식으로 PLC에 의한 정확한 접착시간 및 절단 타이밍 조절, 원형 및 정사각형 나이프 장착, 정확한 위치 및 일정속도 유지, 컨트롤 패널 분리형 및 비상스위치 장착 등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젤리 푸딩 등 디저트, 해산물, 농산물, 각종 식품, 약품 공산품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복식 진공포장기는 수동조작과 센서에 의해 진공펌프를 제어하며 PCB에 의한 컨트롤로 완전 썰링 및 진공, 4개의 썰링라인과 2개의 진공챔버가 소비자의 노동력, 유지비, 생산원가를 최소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음성은 이 3가지 종류에서 크게 벗어나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생산제품과 다른 기계의 주문의뢰가 들어오면 다른 전문 회사를 소개시켜준다. 이것이 업계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소신 때문이다.

오 사장은 포장기계 블록화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만이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또 하나 포장기계 업계가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기술인력은 물론이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지금까지 엔지니어가 경영까지 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고 발전 가능성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법인체제로 바뀌어 능력있는 경영인을 포장기계 업계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최대한 투명 경영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없어져 국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지론을 펼쳤다.

오 사장은 옛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집착하지 말고 좋은 것은 좋은대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음성정공 오필제 사장의 의지에서 포장기계대학 설립과 포장기계단지 조성이 실현돼 우리나라가 포장기계 강국으로 위치하길 기대한다. ☐